

위험해석모델에 따른 노인의 범죄피해 두려움에 관한 연구*

신소영** · 김창호***

〈요 약〉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피해두려움에 대하여 영향요인과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노인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특히, 위험해석모델을 바탕으로 구성된 범죄 위험인지와 행동적 반응을 통한 범죄두려움까지의 경로관계를 노인의 범죄두려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적 특성인 무질서 요인은 범죄에 대한 인지 및 행동적 반응, 범죄두려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둘째, 범죄피해경험 중 직접적 범죄피해경험은 범죄에 대한 인지에만 영향을 미쳤으나 간접적 범죄피해경험은 범죄에 대한 인지와 범죄두려움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셋째, 범죄에 대한 인지는 행동적 반응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넷째, 범죄에 대한 인지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다섯째, 행동적 반응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위험해석모델이 노인의 범죄두려움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특성인 무질서 요인과 개인적 특성인 범죄피해경험은 노인으로 하여금 범죄위험을 인지하게 하고 행동적 반응을 가져오게 하며 최종적으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정화가 필요하며 범죄피해를 당한 노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 범죄두려움, 노인, 행동적 반응, 인지된 범죄, 범죄피해경험, 무질서

* 본 연구는 2015학년도 경기대학교 대학원 연구원장학생 장학금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교수, 교신저자

목 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 설계 및 방법 IV. 분석결과 V. 결론 및 논의 |
|---|

I. 서 론

2000년부터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는 노인 대상 복지정책을 통해 노인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2026년이면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하는 등 고령화 진행속도에 비해 범죄예방 정책은 효과적이라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 노인의 범죄피해지원은 형사정책적 측면 및 사회보장적 측면 모두 외국에 비해 미흡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조성호, 2008: 206). 현대사회 노인은 과거와 달리 자식이 부양을 책임지기보다는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은퇴 이후 노후에 대한 준비에 민감한 경향이 있어 사기 범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부산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2015년 10월까지 부산에서 6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로 28명이 구속되고 422명이 불구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노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심지어 이러한 사기범죄는 2010년 1만 7천622건에서 지난해 2만 2천700건으로 28.8%나 급증하여 노인 대상 사기는 금융 사기, 중소기업인 대상 사기를 포함하여 3대 악성 사기로 구분할 만큼 양적으로도 증가하였으며 죄질 또한 점차 나빠지고

있다(부산일보, 2015). 이와 같은 노인 대상 범죄의 증가와 동반하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노인피해자화는 노인들로 하여금 범죄 두려움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노인을 사회활동으로부터 소외시킬 수 있어(Yin, 1982)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피해두려움에 대하여 영향요인과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노인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과 노인의 범죄피해 특성

노인대상범죄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범죄 관련 통계자료에 따라 연령기준을 정의하고 있는 데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공식통계에서는 기준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범죄관련 학계에서도 이에 준하고 있다(허경미, 2004: 426). 과거에는 가족구조가 대가족 형태였고 경로우대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보호 및 배려가 자발적으로 행해졌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유교사상이 약해지면서 노인 관련 사회문제는 심각해져가고 있다. 하지만, 노인들 간의 범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전미범죄피해조사(NCVS)를 참고해보면 피해사건에 있어 노인의 경우 과소 표시되고 있는 현상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노인들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조윤오 외, 2011: 338). 특히, 노인은 육체적 기능 감퇴와 사회적 역할 및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 퇴직으로 인한 정체성 상실, 주위사람과의 단절로 인한 우울증 정도가 높으며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의존성이 높고 경제적인 안정감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인의 특징은 노인 대상 범죄피해 특성에도 영향을 준다(허경미, 2011: 194).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노인의 특성은 실제 연금수령 및 노후대책이 준비된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범죄피해를 더 당한다는 연구결과와도 상관이 있다(Coston, 2004). 이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노인들이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노후에 투자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재산의 상대적 풍요가 범죄자들의 표적이 된다는 것이다(Sharpe, 2003: 14). 이와 관련하여 FBI에서 발표한

UCR(Uniform Crime Reports)에서도 노인일수록 보험, 부동산, 저축 등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신체적으로 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 말한다(김상균, 2000; 김상균,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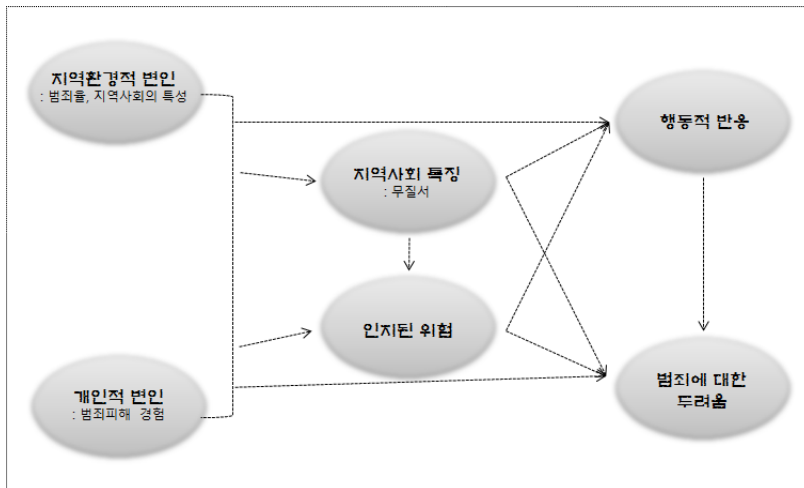
2. 범죄두려움에 관한 이론적 모델

최근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연구는 환경 및 상황을 중심으로 강조한 과거와 달리 감정 및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범죄 두려움을 개인이 인지적 차원에서 범죄피해가능성을 평가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Sacco, 2005). 또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피해위험을 판단하는 인지적 평가 결과가 나아가 개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로 나아갈 것인지를 주목하는 것이다. 특히,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적 취약성 여부 및 범죄피해에 기인한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예방적 차원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Williams & Dickinson, 1993: 34).

인지적 관점에서 범죄두려움과 관련한 대표적인 모델로는 피해경험모델, 위험해석모델을 들 수 있다. 먼저, 피해경험모델은 범죄에 대하여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더욱 많은 두려움을 느끼며 사실상 피해경험에 대한 직접적 결과가 범죄두려움이라고 보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이러한 범죄피해경험은 직접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범죄피해경험 역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간접적 피해경험 역시 심리적 불안과 공포 및 사회적 불신 등을 초래하여 경비서비스, 방범장비 등과 같은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그 피해의 범위와 정도가 경우 따라서는 직접적 피해보다 더욱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윤희, 2007; 김상운·신재현, 2012). 이와 관련하여 Bishop & Klecka(1978)의 연구에서 직접적 범죄피해보다는 간접적 범죄피해경험이 두려움을 보다 더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영향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이나 노인들의 경우 실제 범죄피해경험이 낮아도 상대적으로 범죄두려움을 높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 데, 이는 범죄위험에 대한 노출가능성 및 취약성이 높기 때문이다(Talor & Hale, 1986). 즉, 범죄피해의 경험은 범죄두려움과 높은 연관관계가 있으나 범죄피해경험만으로는 범죄두려움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Ferraro(1995)는 이 점을 고려하여 위험해석모델(risk interpretation model)을 제시

하는 데 위험해석모델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이론적 모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추상적인 개념인 두려움 측정에 있어 체계적인 분류를 바탕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특히, 범죄 두려움을 구성하는 하위요인 간 경로를 통해 단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을 범죄 위험에 대한 인지(perceived risk)와 구분함으로써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위험해석모델을 구성하는 요인으로는 기본적으로 범죄위험에 대한 인지와 행동적 반응, 범죄 두려움과의 경로를 설정하였고 개인적 요인으로 범죄피해경험과 사회적 요인으로 범죄율 및 무질서 요인을 고려하였다. 지역특성 및 주변환경요인인 범죄율 및 무질서의 경우 방어능력에 대한 취약성으로 발생하며 이는 직접적 범죄피해경험보다 범죄피해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일 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어 범죄두려움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성용은·유영재, 2007).



〈그림 1〉 Ferraro(1995)의 위험해석모델에 따른 범죄두려움 모형

이때의 범죄 위험에 대한 인지는 범죄 발생에 대해 인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측정한 개념이며 반응적 행동은 범죄에 대한 회피적 또는 방어적 행동을 의미한다. 또한, 위험해석모델은 범죄두려움의 영향요인으로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 역시 고려하였고 이는 개인적 특성의 영향력과 함께 위험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험을 인지하면 반응적

행동이 나타나 최종적인 결과로 정서적 반응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모델은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였고 정서적 반응인 범죄두려움에 나아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기존 모델에 비해 체계적으로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국내에서는 노인을 범죄피해자로 다룬 위험해석모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범죄두려움과 관련한 모형 및 선행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해석모델에 한정하여 노인의 범죄두려움에 적용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 설계 및 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앞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범죄두려움에 관한 모델을 참고하였을 때 ‘범죄두려움’에 대한 영향요인은 직·간접적 범죄피해경험, 지역사회 의 무질서, 범죄인지, 행동적 반응 등을 들 수 있다.

가설1. 무질서 환경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1-1. 무질서 환경에 범죄에 대한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1-2. 무질서 환경은 행동적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2. 범죄피해경험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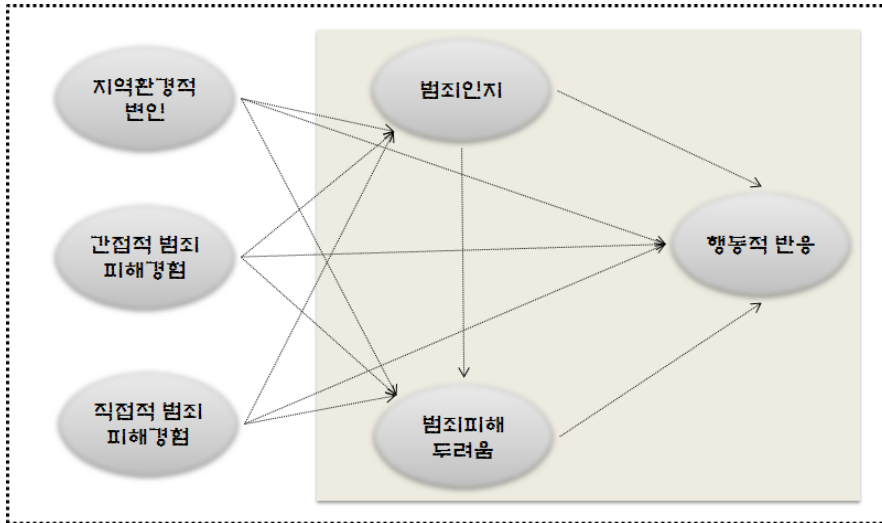
가설2-1. 범죄피해경험에 범죄에 대한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2-2. 범죄피해경험은 행동적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3. 범죄에 대한 인지는 행동적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4. 범죄에 대한 인지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5. 행동적 반응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 2〉 연구모형

2. 분석자료 및 표본의 선정

본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08년에 수행한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와 노인환경의 유해성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와 노인환경의 유해성 연구’는 노인들의 범죄피해 실태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약 1,0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실시하였다. 표본추출은 시도별 도시/농촌과 남성/여성의 비례에 따라 표본 수를 할당하였고 각 지역별 구체적인 조사대상 지역 선정 및 표집은 다단계층화표집(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와 노인환경의 유해성 연구’에서는 ‘노인’을 정하는 연령을 범죄 및 범죄피해와 관련된 공식통계에서 기준으로 하는 60세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남녀비율은 남성이 42%, 여성이 58%로 전체 인구의 성비에 따라 구성하였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3% 높고 경상남도 및 제주도의 경우 평균보다 3.4% 낮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경우 특성을 고려한 표본을 구성하였다.

3. 변수의 구성 및 측정

본 연구는 위험해석모델을 바탕으로 범죄두려움에 접근하고자 하였으므로 범죄에 대한 인지, 행동적 반응, 범죄두려움과의 경로관계를 중심으로 개인적 요인인 범죄피해경험과 사회적 요인인 무질서 요인을 함께 고려하였다.

1) 개인적 요인 : 범죄피해경험

범죄피해경험은 직접적 범죄피해경험과 간접적 범죄피해경험으로 구분하였으며 직접적 범죄피해경험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절도 및 사기, 강도, 폭행에 대한 경험이 있는 지 여부를 측정할 척도를 사용하였고 간접적 범죄피해경험의 경우에는 최근 1년 동안 가족이나 친지 중 범죄피해를 당했는지 여부를 측정할 척도를 사용하였다. 직접적 범죄피해경험의 경우에는 각 범죄에 대하여 경험여부를 측정하였으나 해당 연구에서는 직접적 범죄피해경험이 있는지 여부만이 필요하므로 모든 척도는 ‘없다’, ‘있다’를 기준으로 0점과 1점으로 변환하였다.

2) 사회적 요인 : 무질서

무질서 요인은 동네에 무질서에 해당하는 요인이 심각한지 여부를 측정할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요인으로는 ‘흩어진 쓰레기 및 잡동사니’, ‘거칠고 몰상식한 이웃들’, ‘빈집이나 방치된 공터’, ‘거리에서 서성이는 젊은이들, 시끄러운 소리들’, ‘벽이나 보도에 그려진 낙서’들에 대하여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조금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로 1점부터 4점까지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무질서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범죄 위험에 대한 인지

범죄 위험에 대한 인지는 ‘돌봐주는 사람으로부터의 학대’, ‘소매치기 등 절도’, ‘신체적 폭행’, ‘강도’, ‘사기’, ‘살인’에 대하여 노인이 판단했을 때 일어날 가능성 정도를 측정할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조금 있다’, ‘매우 많다’로 1점부터 4점까지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행동적 반응

행동적 반응은 범죄예방을 위한 행동을 의미하는 변수로 범죄예방을 위해 ‘보조자 물쇠 설치’, ‘경찰서와 방법전화 연결’, ‘경보장치 설치’, ‘이웃과 연락망’, ‘경비견 키우기’, ‘호신도구(호루라기, 가스총, 손전등 등)’에 대하여 준비했는 지 여부를 측정항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없다’, ‘있다고 측정되었으며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각 변수의 값을 합하여 0점부터 6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범죄예방을 위하여 준비행동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밤에 집에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동네에서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범죄피해 당할까봐 어떤 곳을 피해 다닌 경험’, ‘혼자 다니기 무서워 누구와 동행한 경험’, ‘일이 있어도 무서워서 외출을 미룬 경험’을 측정항 문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당 문항은 ‘전혀 없다’, ‘별로 없다’, ‘가끔 있다’, ‘매우 자주 있다’로 1점에서 4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분석방법

논문의 자료 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SPSS 19.0과 AMOS 19.0을 사용하였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정리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사용하였고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과 인과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노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는 1,003명으로 먼저, 성별의 경우 여자가 578명(57.6%)이며 남자가 425명(42.4%)으로

〈표 1〉 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성의 빈도분석

구 분		빈도(N)	백분율(%)
전 체		1003	100
성별	남자	425	42.4
	여자	578	57.6
연령대	만 60세 이상 ~ 65세 미만	136	13.6
	65세 이상 ~ 70세 미만	234	23.3
	70세 이상 ~ 75세 미만	307	30.6
	75세 이상 ~ 80세 미만	207	20.6
	80세 이상	119	11.9
최종 학력	무학	119	11.9
	초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345	34.4
	중학교 졸업(중퇴 포함)	197	19.6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229	22.8
	대학교 졸업(중퇴 포함) 이상	102	10.2
	무응답	11	1.1
결혼 상태	미혼	9	0.9
	기혼	506	50.4
	동거	103	10.3
	사별, 이혼, 별거(배우자 없음)	380	37.9
	무응답	5	0.5
직업 유무	없다	795	79.3
	있다	208	20.7
직업 종류	전문직	17	8.1
	관리·사무직	25	12.0
	생산직	5	2.4
	판매·서비스직	23	11.1
	농어업직	91	43.8
	기타 일용직	47	22.6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많았으며, 연령대의 경우 70세 이상 75세 미만이 307명(30.6%)으로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 70세 미만 234명(23.3%), 75세 이상 80세 미만 207명(20.6%), 60세 이상 65세 미만 136명(13.6%), 80세 이상 119명(11.9%) 순이었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345명(34.4%)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229명(22.8%), 중학교 졸업(중퇴 포함) 197명(19.6%), 무학 119명(11.9%), 대학교 졸업(중퇴 포함) 이상 102명(10.2%), 무응답 11명(1.1%) 순이었다.

결혼여부를 보면 기혼이 506명(50.4%)으로 가장 많았고 사별, 이혼, 별거 등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 380명(37.9%), 동거 103명(10.3%), 미혼 9명(0.9%), 무응답 11명(1.1%)순이었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노인이기 때문에 연령을 고려하면 사별 및 이혼, 별거 등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60대 미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직업의 경우 없다 795명(79.3%), 있다 208명(20.7%)으로 직업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직업이 있는 경우, 직업의 종류는 농어업직이 91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일용직 47명(22.6%), 관리·사무직 25명(12.0%), 판매·서비스직 23명(11.1%), 전문직 17명(8.1%), 생산직 5명(2.4%) 순이었다. 이 역시 연구대상이 노인으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퇴직 이후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교적 연령에 영향을 받지 않는 농어업직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정을 하기에 앞서 판별타당성의 검정을 실시하였다. 즉, 연구변인인 무질서환경, 직접적 범죄피해경험, 간접적 범죄피해경험, 범죄에 대한 인지, 반응적 행동, 범죄두려움의 판별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표 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범죄의 두려움과 무질서환경, 직접적 범죄피해경험, 간접적 범죄피해경험, 범죄에 대한 인지, 반응적 행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무질서환경과 범죄에 대한 인지($r=.183$), 행동적 반응($r=.211$), 범죄의 두려움($r=.210$)에 $p<.01$ 수준에서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적 범죄피해는 간접피해경험($r=.185$), 범죄인지($r=.115$), 행동적 반응($r=.088$)에 $p<.01$ 수준에서 정(+)적 관계를 가졌고 범죄의 두려움($r=.079$)에 $p<.05$ 수준에서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피해경험의 경우 범죄인지($r=.160$)와 범죄의 두려움($r=.165$)에 $p<.01$ 수준에서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죄인지는 행동적 반응($r=.160$), 범죄의 두려움($r=.314$)에 $p<.01$ 수준에서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반응적 행동

〈표 2〉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

	무질서환경	직접피해	간접피해 경험	범죄인지	행동적 반응	범죄 두려움
무질서환경	1					
직접피해경험	.049	1				
간접피해경험	.016	.185**	1			
범죄인지	.183**	.115**	.160**	1		
행동적 반응	.211**	.088**	.061	.160**	1	
범죄두려움	.210**	.079*	.165**	.314**	.203**	1
평균	1.247	0.092	0.056	1.403	0.793	1.885
표준편차	1.289	0.2888	0.2294	0.5322	0.8622	0.5617

*p<.05, **p<.01

은 범죄의 두려움($r=.203$)에 $p<.01$ 수준에서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관관계가 ± 0.8 이상이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의심할 수 있으나 분석결과 각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보면 0.7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아 판별타당성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3. 관계모형의 적합도

노인의 범죄피해두려움에 대한 영향요인과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적 특성으로 무질서 요인과 개인적 특성인 범죄피해경험을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였고 위험해석모델을 적용하여 범죄 위험에 대한 인지와 행동적 반응, 범죄 두려움과의 관계를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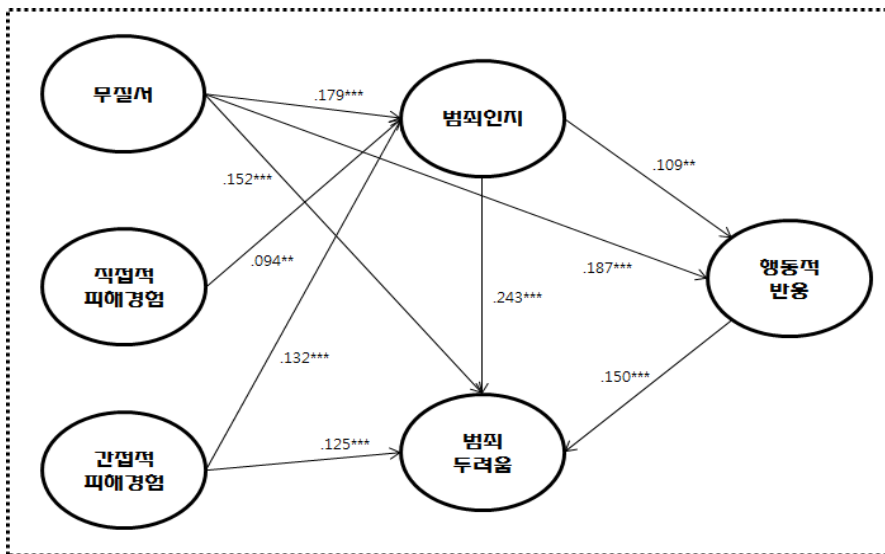
일반적인 경로분석에서의 모든 변수는 관측변수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으로 잠재변수 형태를 구성한 모델로 전화하여 잠재변수 형태의 경로분석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형태만 잠재변수로 만들어주는 것이므로 실제 분석 결과나 모델적합도의 차이는 없다. 다만, 단일 잠재변수와 단일 관측변수로 구성된 모델이기 때문에 측정오차는 0으로 고정하였고 잠재변수에서 관측변수로 가는 경로는 1로 고정하였다. 즉, 측정오차는 존재하나 분산은 0으로써 오차변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잠재변수가 곧 관측변수와 동일시 되게 구성한 것이다(우종필, 2012: 204).

모형의 적합성 판정은 여러 개의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절대적합도지수, 증분적합도지수, 간명적합도지수를 모두 판단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자료는 결측치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절대적합도지수 중 GFI와 AGFI가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증분적합도지수와 간명적합도지수로 모형을 평가하였다. 경로모형 적합도 지수를 확인해본 결과 $\chi^2=296.745(df=78, p=0.00)$ 로 나타났으며 RMSEA .053($\leq .08$), CFI .956($\geq .90$), NFI .942($\geq .90$), TLI .933($\geq .90$), PCFI .622($\geq .05$)로 모든 평가기준이 수렴수치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기본모형의 적합도

	χ^2	df	Q(χ^2/df)	RMSEA	CFI	NFI	TLI	PCFI
기준치	-	-	2.5	.08 ↓	.9 ↑	.9 ↑	.9 ↑	.05 ↑
기본 모형	296.745	78	3.804	.053	.956	.942	.933	.622



〈그림 3〉 최종 경로 모형

4. 가설 검증

앞서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한 경로 모형을 통해 무질서, 직접적 범죄피해, 간접적 범죄피해, 범죄위험의 인지, 행동적 반응,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확인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경로모형을 보면 무질서 요인은 범죄에 대한 인지(Estimate=.179, $t=5.302$, $p<0.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행동적 반응(Estimate=.187, $t=5.989$, $p<0.001$)과 범죄두려움(Estimate=.152, $t=4.465$, $p<0.001$)에도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반면, 직접적 범죄피해경험은 범죄에 대한 인지(Estimate=.094, $t=2.809$, $p<0.01$)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간접적 범죄피해경험은 범죄에 대한 인지(Estimate=.132, $t=3.677$, $p<0.001$)와 범죄두려움(Estimate=.125, $t=3.450$, $p<0.0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범죄에 대한 인지는 행동적 반응(Estimate=.109, $t=3.190$, $p<0.01$)과 범죄두려움(Estimate=.243, $t=6.275$, $p<0.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행동적 반응 역시 범죄두려움(Estimate=.150, $t=4.417$, $p<0.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표 4〉 가설 검증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t)	P
무질서	→ 범죄인지	.046	.179	.009	5.302	.000
직접피해경험	→ 범죄인지	.109	.094	.039	2.809	.005
간접피해경험	→ 범죄인지	.193	.132	.052	3.677	.000
범죄인지	→ 행동적 반응	.280	.109	.088	3.190	.001
무질서	→ 행동적 반응	.125	.187	.021	5.989	.000
직접피해경험	→ 행동적 반응	.176	.059	.094	1.877	.061
간접피해경험	→ 행동적 반응	.141	.037	.127	1.104	.269
무질서	→ 범죄두려움	.070	.152	.016	4.465	.000
직접피해경험	→ 범죄두려움	.011	.005	.069	.162	.871
간접피해경험	→ 범죄두려움	.324	.125	.094	3.450	.000
범죄인지	→ 범죄두려움	.432	.243	.069	6.275	.000
행동적 반응	→ 범죄두려움	.104	.150	.023	4.417	.000

*: $p<0.05$, **: $p<0.01$, ***: $p<0.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적 차원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범죄두려움을 체계적인 단계로 구분한 위험해석모델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위험해석모델은 범죄두려움으로의 과정을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영향요인을 규정하고 범죄에 대한 인지와 행동적 반응을 거쳐 범죄 두려움으로의 관계를 설명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하여 단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질서 요인은 범죄에 대한 인지와 행동적 반응 및 범죄두려움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으며 이는 노인의 주변환경이 무질서에 노출되어 있을수록 범죄에 대한 인지가 높고 범죄예방을 위한 행동적 반응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무질서의 징후들은 노인으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염려를 가져오게 하며 범죄두려움으로 연결될 수 있어(Taylor & Hale, 1986) 사회통제력과 범죄발생가능성과의 관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범죄피해경험 중 직접적 범죄피해경험은 범죄에 대한 인지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간접적 범죄피해경험은 범죄에 대한 인지와 범죄두려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범죄 두려움에는 직접적 범죄피해경험 보다 간접적 피해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의미하는 데 Bishop & Klecka(1978)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직접적 범죄피해보다는 간접적 범죄피해경험이 두려움을 보다 더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영향요인이라고 말해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범죄에 대한 인지는 행동적 반응과 범죄두려움 모두 통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졌는데 이는 노인이 범죄에 대하여 인지하는 정도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한 행동적 반응 빈도가 높아지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LaGrange & Ferraro(1989)는 범죄 피해에 대한 위험인자와 해석이 오히려 범죄두려움에 있어 결정적인 주요 원인이 된다고 말했으며 범죄두려움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의 위험성 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범죄피해의 실제경험으로 인한 두려움보다 이에 대한 심적 민감성이 범죄두려움에 있어 보다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은 간접피해가설(indirect victimization hypothesis)을 들 수 있다. 즉, 주위 사람들이나 TV에서 범죄피해를 간접

적으로 자주 접할 수 있는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자일 수록 범죄두려움을 더욱 느끼게 된다는 점은 직접피해경험보다 간접피해경험이 범죄두려움과 더 많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성용은·유영재, 2007).

넷째, 행동적 반응은 범죄두려움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져 범죄예방을 위한 행동적 조치에 따라 범죄두려움 역시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이는 앞서 언급한 범죄에 대한 인지와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LaGrange & Ferraro(1989)의 연구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위험 인지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듯 범죄를 회피하기 위한 행동이 많다는 것은 범죄두려움 역시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과관계의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방향성을 반대로 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¹⁾ 이 역시 경로모형이 수렴 수치에 적합하였고 범죄두려움은 행동적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즉, 행동적 반응과 범죄두려움은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며 행동적 반응의 결과가 범죄두려움이 되고 동시에 범죄두려움은 행동적 반응으로 나아갈 수도 있음을 말한다. 이처럼 행동적 반응과 범죄두려움과의 관계의 모호함은 Liska & Sanchirico, Reed(1988)의 연구에서도 나타났으며 김지선(2003)은 행동적 반응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결과로써 발생한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위험해석모델을 노인에 대한 범죄두려움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¹⁾이므로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인 모형 수정을 하지 않고 모델 그대로 적용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수정된 모형 검증을 통해 범죄두려움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노인의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적 차원에서 환경개선을 통해 무질서 요인들을 제거하고 경찰순찰과 이웃 간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를 당한 노인들에 대하여 지원센터를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보상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범죄예방 교육과 비상경보장치 및 감시카메라 등 예방을 위한 장치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범죄에 대한 인지 역시 범죄두려움을 향상시키는 데

1) 수정된 경로모형의 적합도는 $\chi^2=94.717(df=24, p=0.00)$ 로 나타났으며 RMSEA .054($\leq .08$), CFI .952($\geq .90$), NFI .950($\geq .90$), TLI .912($\geq .90$), PCFI .520($\geq .05$)으로 모든 평가기준이 수렴수치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로계수 역시 범죄두려움은 행동적 반응(Estimate=.054, $t=4.389, p(0.001)$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쳤다.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범죄피해의 위험성 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상균. (2000). 노인의 범죄피해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 61-82.
- 김상균. (2009). 노인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범죄피해두려움의 차이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9: 95-114.
- 김상운·신재현. (2012).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민간경비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2: 33-63.
- 김지선. (2003).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구성과 결과」,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 성용은·유영재. (2007). 시민의 개인적 특성과 범죄두려움 관계 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4: 261-283.
- 이윤희. (2007). 「피해자학」. 서울: 박영사.
- 조성호. (2008). 노인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범죄피해경험 및 두려움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5(2): 205-219.
- 조윤오·김순석·양문승·원혜옥·이동원·이미정·이봉한·이용혁·이재영·최진혁. (2011). 「피해자학」. 서울: 도서출판 그린.
- 히경미. (2004). 노인의 범죄피해 특징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 423-452.
- 히경미. (2011). 「피해자학」. 서울: 박영사.

2. 국외문헌

- Bishop, G., and Klecka, W. (1978). Victimization and Fear of Crime among the Elderly Living in High Crime Urban Neighborhood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cademy of Criminal Justice Sciences, New Orleans, Louisiana, March.
- Coston. (2004). Victimizing Vulnerable Groups: Images of Uniquely High-Risk Crime Targets, Praeger Publishing Co.
- Farraro, K. F. (1995). Fear of Crime: interpreting Victimization Risk,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LaGrange, R. L. & Farraro, K. F.(1989). Assessing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Perceived Risk and Fear of Crime. Criminology. 27: 697-719.

- Sacco, V. (2005). *When Crime Waves*, Thousand Oaks, CA: Sage.
- Sharpe, C. C. (2003). *Frauds Against the Elderly*. Jefferson, North Carolina: McFarland & Company.
- Taylor, R. B. & Hale, M.(1986). Testing Alternative Models of Fear of Crim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7: 151-189.
- Williams, P. & Dickinson, J. (1993). Fear of Crime: Read All About It: The Relationship between Newspaper Crime Reporting and Fear of Crim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3(1): 33-56.
- Yin, P. (1982). Fear of Crime Among The Elderly: Some Issues and Suggestions, *Social Problems*, 30(2), 240-245.

3. 기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109000063>(2015년 11월 2일 검색)

자료출처: 김상욱·고지영·김석호·김소임·박병진·양종회·장상수·최셋별·한내창. 2009 「한국종합사회조사, 2008」. 자료산출기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 리서치센터. 자료제공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공개년도: 2009년. 자료번호: A1-2008-0009.

【Abstract】

Research on Fear of Criminal Victim of the Elderly Based on Risk Interpretation Model

Shin, So-Young · Kim, Chang-Ho

Verification for the causality of factors affecting fear of criminal victim which has a bad influence on the senior's quality of life and directions to prevent the crimes against the elderly have been suggested. This study proves the applicability for fear of crime to old people especially based on risk interpretation model consisting of perceived risk of crime, behavioral response and fear of crim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isorder factors as social characteristic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s on perceived risk of crime, behavioral response and fear of crime. Second, direct experienced crime victimization only affected perceived risk of crime while indirect experienced crime victimization had an effect on perceived risk of crime and fear of crime as well. Third, perceived risk of crime influenced fear of crime. Fourth, perceived risk of crime was concerned with fear of crime. Fifth, behavioral response was affiliated with fear of crime. These results reveal that risk interpretation model can be applied to senior's fear of crime. Moreover, disorder factor as social characteristic and experienced crime victimization as individual characteristic help the elderly perceive the risk of crime, bring behavioral response. Consequently, they play a role of factors affecting fear of crime. It is emphasized that support policy is required for the elderly who had experienced crime and stabilization of community environment if necessar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Key words : fear of crime, old people, perceived risk of crime, experienced crime victimization, disorder